

기고

설 명절 '스미싱' 피싱사기 문자 주의보

배채현 보성경찰서 읍내파출소 순경



정부 발표에 따르면 신년 초와 설 명절에 신년 새해 인사와 명절 택배가 많아지는 시기를 악용하는 스미싱 사기 시도가 집중되는 것으로 보인다.

피싱 범죄 일당들은 택배회사를 사칭하여 링크를 포함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악성코드 설치를 유도하고 이를 설치하면 소액결제가 진행된다. 또한 명절을 앞두고 상품권 등 명절 상품을 팔 것처럼 꾸며 돈을 가로채는 사기 범죄가 극성이다. 이러한 스미싱 사기 외에도 여러 가지 유형의 스미싱 사기가 있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첫 번째로,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문자 메시지로 현금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가족이나 지인이 사고를 당하거나, 휴대폰이 고장났다고 모르는 번호로 연락한 문자를 받을 경우, 해당 본인에게 직접 연락을 하여 사실 확인한 후 대응해야 한다. 급한 마음에 상대방의 요구에 응할 경우 자칫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다.

두 번째로,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대출을 안내하는 문자를 받은 경우,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전화번호 또는 회선번호로 연락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통화했다라도 상대방이 SNS나 문자메시지로 보내온 인터넷주소를 클릭하거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요구하면 절대 응하지 않아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앱을 설치하면 휴대폰이 악성앱에 감염되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

세 번째로,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됐다고 접근하는 경우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금융감독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전 이체를 요구하거나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 수사기관이라며 개인의 금전 이체나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전화를 받을 경우, 해당에 직접 문의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대응해야 한다.

피해가 걱정될 경우 대처 방법으로는 금융 피해 등이 의심되는 일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금융사 고객센터,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으로 문의해 계좌의 지급 정지 등 도움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SKT는 이와 별도로 고객의 스팸 등에 의한 사기 피해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자체 신고 접수와 대응 채널도 운영하고 있다. 스팸 등의 의심 문자를 #8239로 전달하면, SKT에서 해당 문자를 분석해 시스템에서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SKT가 제공하는 통화옴 T전화 기능을 이용하는 것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T전화는 전화 수발신 및 전화번호 검색 시 해당 번호의 스팸 유형을 이용자에게 보여준다.

T전화에서 상호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정보가 없는 전화번호로는 수발신을 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스마트폰에 스미싱 문자를 탐지할 수 있는 백신을 설치하는 것도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 운천로 213 스키야드 309호	
발행인·편집인 최정현 편집국장직무대리 서선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2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mpn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칼럼

설 명절과 뿌리를 찾는 효 교육

정기연 전 영암 신북초등학교 교장



코로나19 여파로 일상생활이 위축되고 있는 현실에서 민족 대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있다. 올해는 설날을 전후해서 4일간 쉬는 날로 되어 있다. 무엇을 하며 보낼 것인가?

해마다 우리의 전통적인 설 명절과 추석 한가위는 명절날을 전후해서 고향을 찾아가고 오는 민족 대이동이 생기고 있다. 설날은 음력으로 일 년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다.

뿌리 없는 나무가 없듯이 조상이 없는 후손은 없다. 조상 대대로 이어오고 있는 것은 부모에 대한 효성 심과 애정심이다. 이러한 전통적인 효 문화는 일제의 만행으로 설날을 없애려 했지만 없어지지 않고 설날이 조상숭배의 날로 자리를 잡아가며 이어져 왔으며 정부에서는 이중 과세의 폐단이라 하여 한때 설날을 없애려 했으나 결국은 민의를 받아들여 설날을 휴일로 정하였다.

설날은 우리의 전통 민족 문화를 재현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며 조상에 대한 뿌리를 찾아보는 효 교육 일로서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다. 설날은 우리 민족의 전통명절이면서 즐거운 날이다. 마을마다 전통적인 민속놀이와 있고 고향을 찾아온 일가친척들이 모여 즐기는 날이 설날이며 설날 아침에는 조상님께 정성껏 차례를 올린다. 고향을 찾고 조상에 차례를 올리는 것은 효 교육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은 사전교육이 필요하다. 고향에 가기 전에 고향에 대한 교육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조상과 일가친척에 대한 교육도 만남이 있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핵가족시대가 되고 아파트 주거환경이 되면서 이웃을 모르고 사는 것과 고향을 모르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다. 대가족제도에서 조부모가 있는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조부모에게 하는 효도를 자녀들이 배우게 되지만, 핵가족 사회에서는 대부분가정이 조부모가 안 계신 가정이 많으며 자녀들이 어른에게 효도하는 것을 배울 기회가 줄어들었다. 따라서 설날에 조상에 대한 뿌리를 찾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배우게 된다.

고향과 성묘를 하기 전에 해야 할 교육이 있다. 그것은 족보에 대한 교육

이다. 나는 누구인가의 교육이다. 일가친척 사람들의 이름과 사는 곳을 알아보고, 우리 조상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족보를 통해 가르쳐주고 공부하는 것이다.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공부하는데 필요한 가장 적당한 시기와 장소와 자료가 필요하다.

효 교육을 하기에 가장 여건이 좋은 때가 설날 전후이고 장소는 고향을 찾아가는 길도 되지만 고향을 찾는 것 그 자체가 뿌리를 찾는 효 교육이다. 효 교육은 모두가 나를 위해 하는 것이다. 나를 위하고 집안을 위하는 중차대한 교육이 효 교육이다.

명절 때 음식을 장만하면서도 조상의 차례상에 올리려고 정성드려 장만을 하는데, 음식 장만을 하는 그 정성 자체가 효의 정신이다. 기독교 문화에서 차례상 차리는 것을 금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효의 교육적 차원에서는 생각해 볼 문제다. 차례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차례상을 차리는 효의 정성이 중요한 것이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일차적인 접근은 음식문화이다. 조상과 접근하기 위해 정성들여 음식을 마련하고 그 음식을 모인 일가친척들이 같이 먹게 되는데 그것이 잘못이라면 모여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먹으며 즐겨야 하는 것인가? 효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학교 교육으로 연결되고 있는데 가정에서 효 교육의 최적 시기와 장소가 명절 때 조상의 뿌리를 찾는 것이다.

설 명절은 나의 고향을 찾고 부모에 대한 고마움 조상에 대한 고마움을 피부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효 교육이 이루어지는 날이다. 일가친척들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날이 설 명절이다. 설날은 어른들이 후손에게 새해 첫날에 대한 덕담을 하고 세배를 하는데 존경과 사랑의 대화이다.

우리는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의 뿌리를 알아보고 조상들에게 감사하며 은혜에 보답하려는 효심을 갖게 하는 명절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 집의 전통 가풍인 효 문화는 내가 전수하고 전달해 주고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의 자랑인 뿌리 찾기 효 문화교육을 가정에서 설 명절날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기고

가족의 안전, 주택용 소방시설로 지키세요

김승남 강진소방서 성전119안전센터장



설이다.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에 있어 소방차 한 대의 위력을 가지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를 감지해 음향장치로 화재 사실을 알리는 중요한 기초 소방시설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고 적절히 유지관리하며 올바른 사용법도 알아야 한다. 소화기는 1가구당 1개, 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설치해야 한다. 이에 강진소방서에서도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 대형 플래카드를 용하는 등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에 힘쓰고 있다.

올해 설에는 우리 집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며, 화재 사실을 스스로 알려주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화재 초기에 소방차 1대 효과를 내는 소화기를 가족들에게 선물하여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내기를 기원합니다.

전남 코로나 확진자가 97만 명을 넘어섬에 따라 올해 설 연휴에도 작년 이어 고향 방문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일상에서 코로나로부터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화재로부터의 예방에는 소홀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활동이 제한되며 집에서 활동하는 등 생활환경이 변해가고 있다. 이러한 환경을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코로나와 마스크의 관계처럼 집과 주택용 소방시설의 관계를 주목해야 된다.

최근 5년간 소방청 화재 통계를 살펴보면 주택에서 화재 발생 비율은 연평균 약 18%인 반면 전체 화재 사망자 가운데 주택화재 사망자의 비율은 약 42%로 매년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나왔다. 이러한 통계자료로 보았을 때 안전지킴이인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로 구성된 기초 소방시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만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